

● **한수원 '08년 역대 최고수준의 원전운영목표 달성**

- 원전 이용률 93.4%, 고장정지 0.35건/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이 2008년도 원전 운영 결과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92% 이상의 원전 이용률과 호기당 0.4건 이하의 불시정지 건수 달성'이라는 원전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 슬로건을 '패러다임 체인지 2008 Target 9204'라고 정하고 전 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 결과 '08년 원전이용률은 93.4%를 달성, 2007년 세계 평균 원전이용률인 77.75%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원전 선진국인 미국(91%), 프랑스(76%), 일본(64%)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전이용률이 1% 상승하면 연간 약 6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 작년에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한 전력량은 모두 1,509억6천만kWh로 국내 총 전력생산량의 약 3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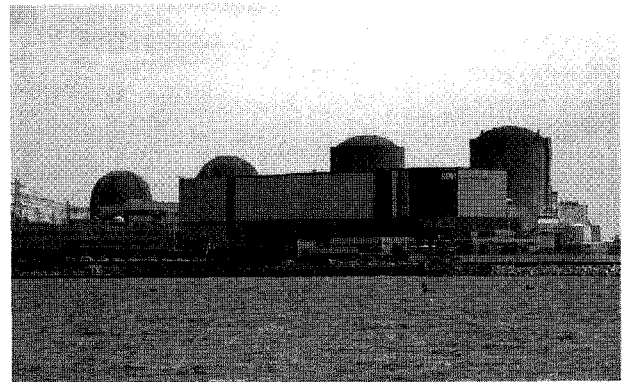
또한 발전소 안전 운영의 대표적 지표인 불시정지 건수는 '08년 호기당 0.35건(총 7건)으로 '07년의 0.6건(총 12건)에 비해 약 4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정지건수인 11건과 비교해 보아도 획기적인 실적이다.

특히 지난해에 국내 원전 역사상 최초로 계속운전에 들어갔던 고리 1호기가 첫 주기에 한주기무고장안전운전(OCTF)을 달성하는 등 한수원은 뛰어난 원전 운영능력을 대내외에 보

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실적에 대해 "인적실수 방지, 지속적인 노후설비 개선, 고장정지 유발기기에 대한 집중관리 등 원전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개선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원전 운영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93% 이상의 원전이용률과 호기당 0.3건 이하의 불시정지건수 달성이라는 '2009 Target 9303'으로 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서부발전, '올해의 정비품질상' 최초 제정 및 시상

-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고품질 정바로 일군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회사 최초로 '올해의 정비품질상'을 제정했다.

'올해의 정비품질상'은 발전설비의 신뢰도 제고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의 품질상'은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되는 설비관리상, 기자재품질상, 기술개발상,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로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부발전은 제1회 '올해의 정비품질상' 시상을 위해 사업본부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는 총 8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응모자가 제출한 공적서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서부발전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제1회 올해의 정비품질상' 시상식을 개최해 수상자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08년 위탁운전 및 정비분야 운영실적 평가 최고 특점 사업소인 한전KPS 평택사업소(소장 이준식)가 '설비관리상'을 수상했다. '기자재품질상'은 (주)신흥기공(사장 송홍섭)과 (주)대양철연(사장 김의수)이, '기술개발상'은 (주)에네스코(사장 양종대)와 (주)지오네트(사장 권영민)가 각각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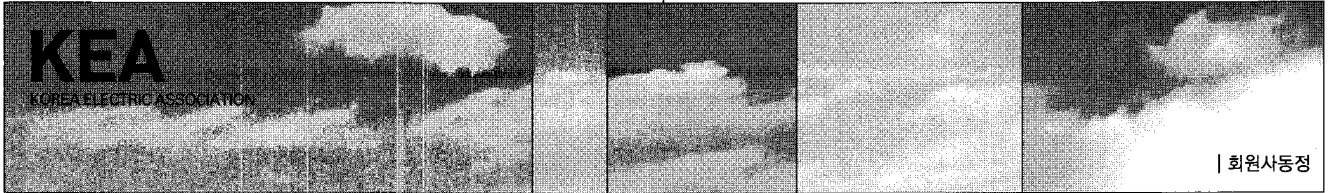
또 개인공로상은 금화PSC 태안사업소 남영훈 부장, 한전KPS 평택사업소 지용석 대리, 금화PSC 서인천사업소 문용

옥 대리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올해의 정비품질상' 시상식에서 손동희 서부발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발전설비 현장에서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정비업체와 정비용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정비적격업체, 발전설비 국산화 및 기술개발 과제 수행업체는 각기 다르지만 서부발전을 만남으로써 발전소 현장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며 '올해의 정비품질상' 제정 취지를 밝혔다.

손동희 사장은 "서부발전은 발전회사로서 우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협조와 동반 성장이 꼭 필요하다"며 "내년 경제상황은 더욱 비장한 각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남부발전, 21세기 에너지 메카도시인 삼척시에서 “남부발전 선진화 3030 전략”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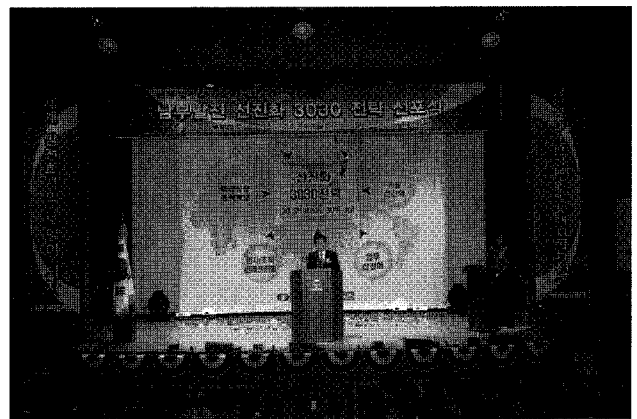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남호기)는 2009년 1월 30일 (금)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메카 도시인 강원도 삼척시에서, 남호기 (南浩基)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삼척시장, 시청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구현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7대 분야 30개 전략과제를 실행하여 생산성을 30% 향상시키고자 하는 “남부발전 선진화 3030 전략”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남부발전의 선진화 3030 전략은, 기술력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저원가 친환경 발전단지 건설에 5.9조원, 신재생, 녹색 성장에 1.3조원, R&D 1.4조원 등 총 8.6조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중, 단기 전략과제로서 연소기술 개발 및 프로세스 개선으로 연간 약 460억원 비용절감, 세계 최초로 대용량 300MW급 CO2 포집기술(CCS)을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이산화탄소를 700만톤 저감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200MW 확충으로 녹색성장 기반 강화, 집단에너지 765MW 운영, 해외 매출 610억원 달성 등을 목표로 세부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0년 남부발전은 2008년 대비 설비용량은 1.6배 증가한 13,400MW, 발전량은 1.5배인 74,424GWh, 신재생 에너지는 34배인 756MW, 매출액은 2.6배인 12조원으로, 명실공히 남부발전의 청사진인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을 실

현할 것이다.

특히, 중요 전략과제인 저원가 친환경 「삼척종합발전단지」건설에 대한 남부발전 임직원의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삼척 현장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삼척시는 남부발전의 에너지사업 동반자로서 총 5조 9,000억원을 투자하여 5,000M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에 최대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남부발전은 선진화 3030 전략 선포식을 계기로 원가절감, 미래성장 동력 확보, 녹색성장 강화 및 기술, 업무 선진화 등 전략과제에 대해서 주기적인 추진성과 실적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명실공히 “세계 발전회사의 모델”로 도약할 것이다.



● 두산중공업, 미국 뉴올리언즈항 크레인 2기 수주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은 1월 22일, 미국 뉴올리언즈항이 발주한 대형 항만하역장비 국제경쟁입찰에서 중국, 핀란드 업체를 제치고 2천7백만달러(320억원) 상당의 대형 항만하역장비 2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항만하역장비는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선박으로 적재하는 RMQC(Rail Mounted Quayside Gantry Crane) 장비로서, 최대 65톤까지 운반이 가능하며 부두에서 바닷쪽으로 도달거리가 51m로 '18열 컨테이너선'의 화물까지 처리가 가능한 대형 항만장비이다. 특히, 이 장비는 미국의 까다로운 안전기준 및 인증 규정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곡선 주행도 가능한 크레인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설계에서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며 오는 2010년 7월까지 발주처에 인도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정용균 상무(운반설비BU장)는 "세계 항만하역장비 시장은 저가전략을 펴온 중국업체들이 휩쓸었으나,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고품질 장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금액과 품질 모두 발주처의 요구를 만족시킨 두산중공업이 수주에 성공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주력 시장인 동남아 지역 이외에도 잭슨빌 등 미주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RTGC(Rubber Tyred Gantry Crane, 선박에

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야적장에 적치하는 장비) 91기, RMQC 12기 등 약 100여기(약 2000억원 상당)의 운반설비를 수주했다.